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추수 감사절을 잘 지내셨는지요? 소식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는 샌프란에서 사위와 딸과 3명의 손자와 함께 일상의 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팔은 축제 기간인 보름 전에 저희 사역지 옆 County(Jajarkot와 Rukum)에서 규모 6.4의 강진으로 150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주민들은 가족과 집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 한국어 언어 센터

한국에 유학하거나, 이주 노동자로 가려는 저마다의 목표를 가진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Mid West 대학교에서 가르친 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과 행동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길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참 사랑을 저희들 통해서 경험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희를 존중을 하지만 어려워하는 듯하고, 저희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길 바라는데 이들은 속 마음을 감추고 있어서 그 마음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공부한 레벨 2 학생들의 수료식과 기초반 수료식이 3월에 있었습니다. 레벨 2 학생들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가 큼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격려하면서 그들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전에 학사관에서 생활했던 청년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마음의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곧 한국에 갈 예정인데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사위의 암진단...

셋째 아들이 태어난지 2 달째인, 지난 5 월에 사위가 대장암이며 간으로 전이가 되었고 폐에도 일부 전이가 된 대장암 4 기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6 개월, 치료를 받아도 30 개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항암치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신생아부터 4 살, 7 살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투병을 하는 사위와 딸 가족을 돌볼 사람이 미국엔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안식년을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위가족을 돌보는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네팔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음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운데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러 나와 함께 가자”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는 바로 미국에 왔고 저는 한국어 레벨 1 을 마무리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사위는 6 월 2 일에 첫 항암치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1 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4 차 항암 후 CT Scan 에서 암세포들이 줄어 들었고, 8 차 항암 후 CT Scan 에선 림프에 있던 암조직이 없어지고 간과 폐에서 New Cell 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예상보다 치료가 잘 되고 있으며, 사위와 딸이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위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계속 지급하면서 투병에 전념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입맛이 없어진 사위의 식사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저는 아내 가 지치지 않도록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저희의 고백이 어떤 상황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Mid West 대학교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길
2. 우빠서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구비되도록
3. 사위의 병세가 속히 완쾌되어서 사역지인 네팔로 돌아갈 수 있도록